

## 어린이 책꽂이



▲조선을 놀라게 한 요상한 동물들=역사책 속에서 재미와 감동을 주고자 기획한 '고전에서 찾은 맛있는 역사' 시리즈 첫번째 권, 사람을 밟아죽여 귀양을 간 코끼리, 궁궐에 들어왔다 쳇겨난 낙타 등.. 조선에 도착한 다섯 마리의 외국 동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어린이 역사 탐구서다. <푸른숲·9천800원>



▲꿈꾸는 뇌=아이들이 자기 몸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그 속에 감춰진 원리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과학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해 주는 '머리에서 밤글까지' 시리즈 가운데 한 권. 과학 용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명쾌하고 쉽게 정리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했다. <아이세움·9천원>



▲할머니네 정원=꼬마 소년에게 나무와 풀이 가득한 할머니네 정원은 읊창한 애정밀립이나 마찬가지. 이 곳에 들어온 순간, 아이의 상상력에 줄을 그을 수 없다. 거대한 공룡 브론토사우루스가 연못의 물을 마신다. 소년의 신비하고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를 시적인 글과 세밀한 그림으로 표현했다. <현암사·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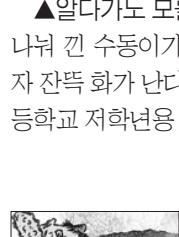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프랑스 소시에르 상 수상작과 크리스티앙 볼츠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독특한 그림책. 해적, 고주, 잡자는 숲속의 미녀 등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책 속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한울림어린이·8천500원>



▲도구의 역사 1권-최초의 인류, 최초의 도구=인류가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만들고 사용했던 도구의 변천과정과 그것이 과학의 발달과 문명에 끼친 영향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석기, 불, 농기구를 사용하는 인간들을 주인공의 한 단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바다어린이·1만1천원>



▲더큰 나를 만드는 힘 노력=어린이책을 만들며 글쓰기를 하고 있는 오은실씨의 동화집.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밭례를 배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이상한 엄마'와 리코더 신동 연우의 이야기를 쓴 '나는 김연우' 등 재미있는 작품으로 생활에 있어 노력에 대한 의미를 강조한 책이다. <글고은·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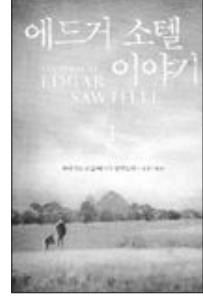


▲나를나불 말주머니=장편동화 '영혜'로 2007년 청비어린이책 대상을 받은 김소연 작가의 최신작이다. '빨랫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등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동화가 가득하다. <파랑새·9천원>

## 말 못하는 개들과 나누는 가슴벅찬 교감

## 에드거 소텔이야기 1, 2

## 데이비드 로블레스키 지음



술에 취해 잠든 주인을 구하기 위해 온 몸에 물을 묻혀 범져 오는 불을 켰다. 이 이야기는 스플레 형식을 따고 있지만 수묵화 같은 서정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하느님이 들려준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잃고 태어났다는 에드거는 어려서부터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에 익숙한 소년이다.

벙어리 소년 에드가 소렐이 개들과

나누는 교감, 그리고 소텔 집안의 파란만장한 가족사를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에드거는 위스콘신 북부의 시골농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개들을 교배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며 평화롭게 살

아간다.



'에드거 소텔 이야기'는 인간과 개의 사랑을 그렸다. 사진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보낸 풍산개의 손녀 격인 강아지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에드거의 삼촌 클로드가 돌연 집으로 돌아오며 평화로운 소텔 집 안은 서서히 파국을 맞게 된다. 에드거는 농장 저편의 광대한 산

립자대로 도망치게 된다.

그는 자신을 따로온 세 마리의 개와 더불어 앙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며 성장한다. 또 애벌자를 죽인 살인자에 맞서야 하는 운명을 짊어지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무엇보다도 개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가 눈에 띈다. 타고난 이야기꾼인 저자가 개와 인간의 교감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내면 묘사를 담담한 필체로 풀어냈다.

또 하나의 불거리는 1950년대 중반 미국의 풍경 묘사이다. 북쪽 지방의 숲, 계절의 변화, 미국의 상징이 된 헛간 등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저자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보고 느낀 장면들을 소설 속에 풀어놓았다. 그는 1959년 위스콘신에서 태어났다.

세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작고 허름한 농장을 사서 운영하게 됐고, 이 때의 경험이 이번 소설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랜덤하우스·각권 1만2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삶'

## 희망을 심다

## 박원순·지승호 지음



시민운동가 박원순(53) 변호사의 삶과 일, 생각을 인터뷰 형식으로 엮은 '희망을 심다'가 출간됐다. 알마홀판사는 '동시대 인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소설가 공지영이 인터뷰해서 엮은 '괜찮다 괜찮다'에 이어 두 번째로 펴낸 책.

대학 재수 시절 돈이 없어 석 달 동안 같은 양말을 내내 신고 지난 이야기, 양을 사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적성이 맞아 1년 만에 검사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연, 7년을 싸운 끝에 승소 판결을 받은 서울대 우조교 성희룡 사건 등에 대한 소회 등을 짧은 인터뷰로 지승호에게 가감 없이 털어놓고 있다.

지씨는 '박원순은 21세기 실학운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문을 연 희망제작소의 상임이사답게 자신을 실증주의자라고 말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거대단본 과잉의 시대이고, 이념을 흑백으로 무도하게 분류하는 시대에서 각론과 디테일한 부분을 고민해야 하며, 같은 부분은 합의하고 다른 부분은 조율해나가는 기술을 박원순에게 배워야 한다"고 덧붙인다.

젊은이들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시리즈답게 책은 박 변호사의 성장과정은 물론 학창시절 공부법, 스트레스 푸는 법, 삶의 조언 등을 다양하게 엮었다.

책의 말미에는 '내 딸과 아들에게' 등 박 변호사가 작성한 3편의 공개 유언장을 싣고 있다. <일마·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공짜 점심' 먹는 부자들

## 프리런치

##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지음



2001년 미국 조세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기사로 풀리처상을 받은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은 뉴욕타임스 기자는 '프리런치'를 통해 전체적 부(富)는 즐가하지만, 소수만이 부자가 되는 현상의 원인을 찾아나선다.

책 제목 '프리런치'(free lunch) 즉 공짜 점심은 정부의 개인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이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쪽에서 경제적 혜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고위직 공직자들과 이들에게 로비한 기업과 부자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짜 점심'을 먹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로 이 '공짜 점심'이 미국 사회에 고조되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을 국민이 낸 세금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따라가며 추적한다.

전기료, 도로통행료, 그리고 의료비를 꼬박꼬박 다 내 놓고도 왜 혜택은 못 받는 것인지, 짱 학자금 대출이라며 빌려줄 땐 언제고 왜 이제와서 엄청난 이자율로 빚이밀어 빚쟁이로 전락시킨 것인지 등을 세금과 기업, 정부의 메커니즘으로 풀어썼다.

책은 한국의 정치인·자본가·기업인이 눈여겨보고 정책수정에 반영해야 할 '실사보고서'이다. 내 돈 내고 제 권리 못 찾고 있는 순진한 국민들을 위한 '예방백신'이다. <옥당·2만1천9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낯설고 신선한 스토리 전개

## 늑대의 문장

## 김유진 지음



2004년 '늑대의 문장'으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유진씨가 첫 소설집 '늑대의 문장'을 펴냈다. 상호폭력과 비극적 서사 구조로 얹힌 이야기 9편이 낯설고도 신선한 감각으로 펼쳐진다.

표제작 '늑대의 문장'은 전염병처럼 벌어지는 폭사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버려지고 방치된 개들이 늑대로 변하면서 일어나는 아수라장을 담고 있다. 늑대가 된 개들은 밤만 되면 폭사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먹어치우고, 반대로 낮에는 사람이 늑대의 자식들을 죽여 나간다.

이번 소설집에는 '재앙'이라는 코드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늑대의 문장'에서는 원인 모를 폭사가 전염병처럼 사람을 덮치고, 저수지 범람으로 인한 실족사가 일상이 되고('목소리'), 바람이 세상을 삼키고('마녀'), 지진이 수백 명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움') 등이 그것이다.

늑대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은 개떼, 깨마귀, 거두운 나무, 깊이를 알 수 없는 물 속,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폭우와 지진, 코끼리, 악몽 등 낯선 풍경들을 '늑대의 문장'으로 적고 있다.

문학평론가 김형중씨는 "김유진의 소설은 평상적인 소설의 관습에 역행하는 인상적인 시적 실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학동네·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국민법률경매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태운5층

## 광주, 전남지역 경매

•062)364-8700 ·010-4608-3700

경·공매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강영희

## 도지사/급여/급여/대지

지역	소재지	면적	면적	면적	면적
광산구	서구	256	256	1회기 1회기	
	화곡동	470	585	2년기 2년기	
	화곡동	192	192	7회기	
	화곡동	1880	1억2924평	1억2924평	
	화곡동	407	4억4577평	3년기 3년기	
서구	화곡동	264	1억1224평	7회기 7회기	
	화곡동	220	3억825평	3회기 3회기	
	화곡동	878	1억796평	1회기 1회기	
	화곡동	1252	794평	3회기 3회기	
	화곡동	1487	2억2868평	1회기 1회기	
	화곡동	57	1억8525평	5년기 5년기	
	화곡동	1698	1억5274평	3회기 3회기	
	화곡동	453	453	7회기	
	화곡동	2113	3억545평	2회기 2회기	
	화곡동	2186	795평	2회기 2회기	
	화곡동	279	1억2515평	4회기 4회기	
	화곡동	4443	6억784평	4회기 4회기	
	화곡동	453	453	7회기	
	화곡동	1003	5억325평	8년기 8년기	
	화곡동	2002	4억454평	8년기 8년기	
	화곡동	506	125	7회기	
	화곡동	1692	3억352평	1회기 1회기	
	화곡동	1117	2억2524평	1회기 1회기	
	화곡동	3807	2억2524평	2회기 2회기	
	화곡동	159	3억545평	2회기 2회기	
	화곡동	1623	2억494평	1회기 1회기	
	화곡동	1104	2억797평	2회기 2회기	
	화곡동	2575	2억394평	1회기 1회기	
	화곡동	3030	2억564평	1회기 1회기	
	화곡동	1649	5억345평	8년기 8년기	
	화곡동	2412	3억545평	4회기 4회기	
	화곡동	2541	454평	2회기 2회기	
	화곡동	2			